



##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120여개국 2400여개 스타트업 지원

전 세계 스타트업, 한국의 러브콜에 “좋아요”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124 개국, 2,439 개팀 지원서 접수(경쟁률 60:1)-  
- 창조경제의 글로벌화를 향한 당찬 출발 -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 최양희)는 ‘K-Startup 그랜드 챌린지’의 지원서 접수가 전 세계 스타트업의 뜨거운 관심 속에 6월 14일(화) 마감되었으며, 총 124개 국가의 2,439개 스타트업이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 올해 처음 시행되는 ‘K-Startup 그랜드 챌린지’는 한국 및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전 세계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국내 창업 생태계에 정착하도록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 세계적인 스타트업 프로그램 매스챌린지(미국)의 금년 지원팀 수가 1,700여팀이고, 프렌치테크 티켓(프랑스)은 1,372팀인 것을 감안할 때 전 세계 스타트업계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기대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미래부는 높은 경쟁률이 나타난 요인을 ① 한국의 창조경제 이니셔티브(Creative Economy Initiative)가 해외에 널리 알려지면서 한국에서의 창업성공에 대한 높아진 기대감, ② 대기업(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과의 협력 기회 제공 등 他국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매력, ③ KIC(Korea Innovation Center, 글로벌혁신센터) 등 해외거점을 활용한 현지 홍보 및 Tech Crunch, Tech in Asia 등 스타트업 미디어에 대한 프로그램 소개 등으로 보고 있다.

□ K-Startup 그랜드 챌린지를 매스챌린지, 프렌치테크 티켓 같은 세계적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미래부는 전 세계 스타트업의 관심이 집중된 지금, 앞으로의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 우선, 여러 단계의 평가를 거쳐 우수한 아이디어/기술을 보유하고 한국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팀을 선별할 예정이다.

○ 접수된 지원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면밀히 평가하여 240팀을 추려낸 뒤, 유럽(2개국).미국.아시아(5개국).한국 등 9개 국가에서 오디션(6.20~7.11)을 실시하여 80팀을 선발하고, 선정된 80개팀 대표들에 대한 1주일(8.17~23)간의 국내 합숙평가를 거쳐, 40팀만이 3개월(9.1~11.30) 동안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 액셀러레이팅 기간에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내 개방형 사무공간이 지원되며, 4개 액셀러레이터(스파크랩스, 액트너랩, DEV 코리아, 쉬프트)가 각 10팀을 전담하여 국내 창업활동을 돕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 미팅등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 데모데이(11월 말)를 통해 최대 20팀을 선발하여 국내 창업을 전제로 초기자금, 사무공간, 비자 등 국내 생태계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 미래부는 내년부터 액셀러레이팅 참여 대상을 50팀까지 늘리고, 국내 스타트업에게 보다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개편할 계획이다.



- 프로그램의 장점인 대기업 연계를 비롯해 **내용적인 면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며,
  - **국내외 스타트업 간의 교류·협력**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은 물론, 해외 스타트업의 일부를 다양한 협력채널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선발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통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또한, 금년 접수된 2,400여개 스타트업들은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 등 우호적 자산이 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 관련 정보 메일링서비스** 등을 통해 **탈락자들에게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 미래부는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창업생태계가 글로벌화** 되고, 우수기술을 가진 창업기업이 많이 생겨나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미래부 고경모 창조경제조정관은 “계획대로 진행되면 향후 5년간 100개 이상의 글로벌 스타트업이 새로 생기게 된다.”면서, “이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국내 스타트업들에게도 글로벌 감각을 키우기 위한 훌륭한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137394>



## 해외 스타트업 '수입'하는 정부, 창조경제 '가속' 오는 19일까지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최종 결선 진행

[뉴스핌=정광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유망 해외 스타트업의 한국 진출을 통한 생태계 성장 및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에 나섰다. 세계적인 스타트업 오디션으로 성장시켜 내수 시장 규모를 확대시킨다는 목표다.

미래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과 함께 'K-Startup 그랜드 챌린지(이하 그랜드 챌린지)' 최종 결선을 17일부터 19일까지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그랜드 챌린지는 한국 및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전 세계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국내 창업 생태계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랜드 챌린지에는 124개국에서 2439개 스타트업이 지원했다. 국가별 예선을 거친 32개국 78개팀을 결선에 올랐다. 창업 아이템 분야에 따라 12개의 그룹으로 나눠 팀당 5분 발표 및 5분 Q&A 방식으로 피칭을 진행하며 선발팀을 직접 지원할 액셀러레이터 4개사(스파크랩스, 액트너랩, DEV코리아, 쉬프트)와 창업생태계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평가한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최종결선 개최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미래창조과학부>

피칭이 끝난 팀은 액셀러레이터들과 각각 20 분간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고 피칭심사와 인터뷰 결과를 종합해 최종적으로 국내 액셀러레이팅 참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그랜드 챌린지를 통해 스타트업 시장의 활성화와 해외 스타트업의 국내 정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결선 진출팀 국가별 구성은 미국 16 개팀(21%), 인도 8 개팀(10%), 싱가포르 7 개팀(9%), 벨기에 5 개팀(6%) 등이다. 참가팀의 절반 이상이 평균 40 만 달러 수준의 초기투자를 받았을 정도로 역량이 우수하다는 설명이다.



해외 스타트업을 수입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그랜드 챌린지에 대한 업계 기대감은 높은 편이다. 이에 따른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도 예상된다.

하지만 해외 스타트업이 한국을 아시아 진출을 위한 일종의 ‘테스트베드(시험무대)’로 악용하는, 이른바 지원만 받고 출국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그랜드 챌린지에 참가한 해외 스타트업은 한국을 선택한 이유로 아시아 시장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가치가 크다는 점을 들고 있다. 내수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국내에서 기술 및 상용화 성과를 거둔 해외 스타트업이 중국이나 일본 등으로 서둘러 이탈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안창용 창조융합기획과장은 “제도적으로 이탈을 막을 경우 ‘세계적인 스타트업 오디션’이라는 목표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선별 해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때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11월 말 열릴 예정인 데모데이를 통해 최대 20팀을 선발해 국내 창업을 전제로 초기자금과 사무공간, 비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6개월간 팀당 4000만원의 정착지원금이 제공된다.

최양희 장관은 “그랜드 챌린지를 통해 다양한 문화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 자유롭게 소통하고 그 안에서 글로벌 시장에 통하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비자문제 등 외국인의 국내 창업과 관련된 제도들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817000265>



## 세계 창업인의 도전무대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결선 개시

- ◆ 17일부터 4박 5일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서 개최
- ◆ 2,439개 국내외 업체중 예선통과 78개 기업 참여
- ◆ 최종 40개 업체 선발해 9~11월 국내 창업지원
- ◆ 11월말 20개업체 선발해 자금 및 비자 등 지원키로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세계의 유망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발굴을 위해 17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최종결선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이번 결선에는 삼성전자, LG, SK, GS, 두산, 포스코, KT,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참여해 사업잠재력이 있는 스타트업들과의 비즈니스 마팅을 진행한다. 또한 국내 주요 액셀러레이터(스타트업, 벤처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투자중개업체), 벤처캐피탈 관계자들이 참여해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논의한다.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124개국의 2,439개 스타트업이 지원했으며 이중 예산 등을 통과한 78개 스타트업이 결선에 진출하게 됐다. 결선에선 최종 40개 업체가 선발될 예정이다. 최종 선발 40개 업체는 9월부터 11월말까지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지원을 받아 국내 창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된다. 이중 20개 스타트업이 오는 11월말 선발돼 국내 창업을 전제로 4,000만원씩의 초기 자금 및 사무공간, 창업비자 발급 인사 및 노무 컨설팅 서비스 등의 국내 정착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결선 진출 스타트업의 국적별 분포를 보면 미국팀이 16개 업체에 달해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인도 8개팀, 싱가포르 7개팀, 벨기에 5개팀 등이 결선 진입에 성공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그외 28개 국가별로 각각 1~3개씩의 업체가 결선 행사에 참여했다. 참가업체중 상당수가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봇(bot)서비스, 드론, 핀테크, 헬스케어,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제출한 상태다.

미래부는 K-스타트업 글로벌챌린지 프로그램이 정착하면 국내 창업인들이 초기부터 내수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무대를 겨냥해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토종 창업인 뿐 아니라 해외 창업인들도 국내로 유입시켜 한국을 세계적 창업기지로 키울 수 있게 된다고 소개했다. 최양희 장관은 “이 프로그램이 세계적인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비자문제 등 외국인의 국내 창업과 관련된 제도들을 국제부처와 협의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L06E0XWQF>

## [K-스타트업] 글로벌 창업가들 "코리안드림 GO"

## ■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이목 집중



전 세계 청년들의 코리안 드림은 실현될 수 있을까.

페이스북, 우버와 같은 유니콘 기업을 만들겠다는 부푼 꿈을 가진 전 세계 청년들이 한국으로 모였다.

한국 및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전 세계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이들을 국내 창업 생태계에 안착시켜주고자 올해 처음 개최된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에는 124 개국에서 2439 개 스타트업 팀이 지원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의 경쟁률은 60 대 1 에 달했다.

미국 유럽 아시아 등 9 개국에서 벌어진 예선을 뚫고 8 월 17 일부터 4 박 5 일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최종 결선에는 32 개국 78 개팀이 진출했다. 결선을 거쳐 최종 40 개팀이 선발되면서 지난 6 월 20 일부터 2 개월간 진행된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의 선발 과정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최종 선발된 팀들은 본격적으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보육될 예정이다. 치열한 선발 과정을 거쳐 선발된 팀들은 사물인터넷, 헬스케어, 미디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아이템을 가지고 성공신화를 꿈꾸고 있다.

절반가량 회사들은 이미 초기 투자를 받은 업체들이다. 그만큼 어느 정도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다.

선정된 40개팀은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동안 이들은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진행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국내 4개 액셀러레이터가 각각 10팀을 담당하고 이들이 한국에서 창업활동을 전면 지원한다. 국내 액셀레이터들은 창업팀들이 전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보육 기간이 끝나는 11월 말에는 데모데이를 통해 최대 20개팀을 선발한다. 해당 팀들이 국내에서 본격적인 창업활동을 하게 되면 초기자금과 사무공간, 비자 등을 지원받게 된다.

글로벌 창업팀들은 왜 창업 본거지인 실리콘밸리가 아닌 한국을 선택했을까. 참가자들은 한국 시장에 얼리어답터가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신제품을 테스트하기에 좋은 시장이라는 얘기다. 중국 등 거대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한국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도 내비쳤다.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을 택한 이유로 꼽혔다. 생각보다 이번 행사가 전 세계 창업가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부터 행사 규모를 확대할 방



침이다. 내년부터는 최종 선발팀을 50개 팀으로 늘릴 예정이다. 최종 선발되지 않는 팀들에 대해서도 국내 대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비즈니스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는 새로운 콘셉트를 시도한다. 국내 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많이 있었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스타트업을 한국 생태계로 끌어들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들이 한국 생태계에서 창업활동을 벌이도록 유도하면서 국내에서 창조경제의 바람을 확산시킬 수 있다. 한국 생태계에서 성장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성공 사례가 많이 나온다면 한국이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다양한 문화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그 안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비즈니스를 만드는 생태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참가 스타트업

번호	회사	국적(참가자)	분야	번호	회사	국적(참가자)	분야
1	Clear Flight Solutions	네덜란드	야외생활 위험관리	20	VersaFleet Pte. Ltd.	싱가포르	물류
2	RealSpeaker Limited	러시아	IoT	21	JIO.SG Pte. Limited	싱가포르	미디어 엔터
3	Unnyhog	러시아	게임	22	Vanity Trove Private Limited	싱가포르	뷰티
4	YToday Sdn Bhd	말레이시아	마케팅	23	FASHORY PTE LTD	싱가포르	패션 빅데이터
5	Favful	말레이시아	뷰티	24	Einsof Biohealth	아르헨티나	바이오 헬스
6	Pulzze Systems. Inc.	미국	IoT	25	Mind Rockets Inc.	요르단	장애인 대상 서비스
7	Fletch	미국	교육	26	DOV-E	이스라엘	정보보안
8	Kadho Inc	미국	교육 스포츠	27	The Energy Audit srl	이탈리아	소프트웨어
9	MoonROK Media	미국	미디어	28	Smartphlex	이탈리아	헬스
10	Traversal Networks	미국	보안	29	Vegam Solutions Pte. Ltd.	인도	IoT
11	Music Mind	미국	엔터	30	Preksh Innovations Private Limited	인도	VR AR
12	Fingertips Lab	미국	전자제품	31	SoundRex	인도	엔터
13	DarcMatter	미국	핀테크	32	Go GreenEOT (Energy of Things) Pvt Ltd.	인도	에너지
14	ChemiSense. Inc.	미국	헬스	33	iGrow	인도네시아	농업, 핀테크
15	Triip Pte. Ltd	베트남	여행	34	Herxun Technology Li	중국	인터넷
16	Yppuna	베트남	화장품	35	Ourotech Inc.	캐나다	바이오 헬스
17	Appiness Inc.	벨기에	디지털 마케팅	36	TravelFlan	캐나다	여행
18	Imagga Technologies	불가리아	머신러닝	37	GetLinks Inc.	태국	SNS
19	Teambay GmbH	시리아	빅데이터	38	Findster Technologies S.A.	포르투갈	기기
				39	TOONYOU	프랑스	교육
				40	My Music Teacher	프랑스	교육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613980>



## 한국시장 진출에 도전하는 세계 스타트업들

‘K-Startup 그랜드챌린지 2016’ 최종 결선, 40팀 선발에 경쟁률 60: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윤종록)은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국내 액셀러레이팅(스타트업에 초기 자금과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것)에 참가할 40 팀을 가리기 위한 최종 결선을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4박 5일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개최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K-Startup 그랜드 챌린지’는 한국 및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전 세계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국내 창업 생태계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K-Startup 그랜드 챌린지’는 시행 첫해임에도 124개국에서 2,439개 스타트업 팀이 지원해 60:1의 경쟁률을 보이며 전 세계 스타트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행사다. 6월 20일부터 7월 13일까지 유럽·미국·아시아 지역 9개 국가에서 예선을 치러 85개 팀을 선발했고, 기권의사를 밝힌 7개 팀을 제외한 32개국의 78개 팀이 결선에 참가했다.

결선 진출 팀 중에는 미국 팀이 16개(21%)로 가장 많았고, 인도 8개 팀(10%), 싱가포르 7개 팀(9%), 벨기에 5개 팀(6%) 등의 순서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28개 국가별로 1~3개 팀이 포함되었다.

아시아	팀수	유럽	팀수	북미	팀수	아프리카	팀수	오세아니아	팀수
싱가포르	7	벨기에	5	미국	16	세네갈	1	호주	1
인도	8	네덜란드	1	캐나다	2	남아공	2		
태국	3	독일	1	남미	팀수				
말레이시아	3	프랑스	2						
베트남	3	스페인	2	아르헨티나	2				
인도네시아	2	포르투갈	2						
중국	1	러시아	2						
대만	1	영국	1						
필리핀	1	노르웨이	1						
이스라엘	1	핀란드	1						
요르단	1	몰도바	1						
팔레스타인	1	이탈리아	1						
		루마니아	1						
		불가리아	1						
소계	32		22		20		3		1
합계					78				

참가 팀 대표의 연령 분포는 20대 47%, 30대 41%로 대다수가 청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70%의 팀이 5명 이하로 구성되어 있고 업력은 평균 2.7년으로 신생기업이 많았다. 그러나 참가팀의 절반 이상이 이미 평균 40만 달러 수준의 초기투자를 받은 우수한 팀들이다.

미래부는 “우리나라보다 좋은 창업환경을 갖추었다고 알려진 미국과 유럽에서 많이 참가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대부분의 참가 팀은 AI, VR, 봇(bot) 서비스, 드론, 핀테크, 헬스케어, 전기자동차 등 혁신기술 분야의 스타트업이다. 이들은 '한국을 선택한 이유'로 한국시장에 얼리어답터가 많아 신제품/서비스의 테스트베드로 적합하다는 점, 아시아 시장진출을 위한 교두보, 우수한 ICT 인프라, 대기업 협력 기회 등을 꼽았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8월 1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피칭(Pitching)심사 및 심층인터뷰, 국내 대기업 및 투자기관 비즈니스 상담회, 외국인 스타트업 선배와의 만남, 네트워킹 파티, 한국문화체험 투어 등이 진행된다. 8월 19일까지 2박 3일간 펼쳐지는 피칭 무대는 창업 아이템 분야에 따라 1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팀당 5분 발표 및 5분 Q&A 방식으로 진행되며, 선발 팀을 직접 지원할 액셀러레이터 4개사(스파크랩스, 액트너랩, DEV 코리아, 쉬프트)와 창업생태계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평가한다. 피칭이 끝난 팀은 각 20분간 심층인터뷰를 마친 후, 피칭심사와 인터뷰 결과를 종합해 최종적으로 국내 액셀러레이팅 참여 여부가 결정된다.

미래부는 내년부터는 보다 많은 우수 스타트업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규모를 50팀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개회식에서 "K-Startup 그랜드 챌린지를 통해 다양한 문화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 자유롭게 소통하고, 그 안에서 글로벌 시장에 통하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면서, "이 프로그램이 세계적인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비자문제 등 외국인의 국내 창업과 관련된 제도들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2232>

##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2016’ 결선, 한국무대 목표로 32 개국 78 개팀 참가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2016’ 최종 결선이 17 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시작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한국 및 아시아 시장에 진출을 희망하는 전 세계 유망스타트업을 발굴해 국내 창업 생태계 정착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2016 최종 결선이 열리는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이번 행사는 28 대 1 에 가까운 예선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32 개국 78 개 스타트업이 참가했다. 19 일(금)까지 이어지는 최종 결선 대회에서 국내 액셀러레이팅에 참가할 최종 40 팀이 선발된다.



피칭 중인 싱가포르 'About Number Pte'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그룹별 피칭과 질의응답, 심층인터뷰 순으로 진행됐다. 대회 첫날인 오늘은 ▲소프트웨어 ▲VR, 봇, 게임, 드론 ▲IoT ▲빅데이터 분야 4 그룹 24 개 팀이 피칭에 나섰다. 각 팀은 5 분 피칭과 5 분 질의응답을 마친 후 액셀러레이터들과 20 분간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심사 평가에는 액셀러레이터 [스파크랩스](#), [엑트너랩](#), [DEV 코리아](#), [쉬프트](#) 4 개사와 창업생태계 전문가 4 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참여했다.



질의응답 중인 벨기에 'Social Seeder Bvba'

최종 선발된 40 개 팀에게는 다음 달 1 일부터 3 개월간 국내에서 성장과 정착을 돕기 위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기간 액셀러레이터 4 개사는 선발팀 각 10 팀씩을 맡아 국내 창업 활동을 직접 지원한다.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11 월 말에는 데모데이를 통해 최대 20 팀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국내 창업을 전제로 4 천만 원의 초기 지원금과 창업비자 취득 지원, 컨설팅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스타트업캠퍼스 컨퍼런스홀 1층 로비

한편, 행사가 열리는 스타트업 캠퍼스 1 층 컨버런스홀 로비에는 창업생태계 관련자들과 개별 미팅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다. 이 밖에도 선배 외국인 스타트업과 함께하는 워크샵, 네트워킹 파티 등 해외스타트업과 국내대기업, VC, 국내스타트업 관계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참가 업체와 자세한 행사일정은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venturesquare.net/731405>



## IT startups compete in K-Startup Grand Challenge this week's finals



More than 2-thousand startups from 124 countries engaged in the so-called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ve come to Korea to participate in an initiative to put concepts into motion.

"IT startups from all over the world have gathered at the startup campus in Pangyo, south of Seoul, to pitch their ideas to a group of accelerators and tech companies as part of this year's K-Startup Grand Challenge, host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and led by the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By the end of this week only 40 out of 78 teams will be selected to continue on to the next phase of the competition.

Those that make it will be eligible to receive financial support, visas and office space at locations in and outside of Seoul to help them get settled in the country.

"We have an application for VR focusing on retail where we provide immersive shopping experiences. People can actually virtually walk into a store, pick up a product and shop. We are based in India. We are here in Korea because Korea is one of the best markets in terms of internet penetration. And VR is heavily dependent on internet connectivity and early adopters of new technology."

The Challenge was conceived to help foster a healthy startup eco-system in Korea, which is one of the central goals under the government's "creative economy" initiative.

"Creative economy refers to an initiative where science, technology and ICT converge with the imagination of our citizens to create synergy effects. I believe people like you startups will play a pivotal role in realizing this creative economy."

The startup campus in Pangyo which opened in March was built to offer startups a platform to grow to turn it into the Asian version of the Silicon Valley.

To do that, the minister says he hopes to turn the Challenge into an annual event and increase its capacity to support more startups next year.

[http://www.arirang.co.kr/News/News\\_View.asp?nseq=194502](http://www.arirang.co.kr/News/News_View.asp?nseq=194502)



## 해외 스타트업 78개팀 판교서 ‘창업 올림픽’ 미래부 주관 ‘그랜드 챌린지’ 결선 개막… 21일까지 혁신 경쟁

“게임 조이스틱이 없어서 불편하다고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문제없습니다. 우리가 플리치오(Flitchio)를 개발한 이유죠. 스마트폰 케이스에 플리치오만 끼우면 각종 게임은 물론이고 드론, 스마트 TV, 장난감도 손쉽게 조종할 수 있습니다.”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프로그램은 국내가 아닌 해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올해 처음 열린 이 대회에 세계 유망 스타트업들이 대거 몰려 글로벌 창업 열풍을 실감케 했다. 6월 중순 마감된 서류심사에는 124개국 2439팀이 참가신청을 했고 이 중 240팀이 통과됐다. 이들을 상대로 7월 9개국에서 예선이 열렸고, 이를 통과한 78팀이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에서 열리는 결선에 참가하고자 한국을 찾았다.

최종 결선에 오른 78팀의 국적은 유럽 미국 아시아 등 32개국으로 다양하다. 미국이 16개로 가장 많고 인도(8개) 싱가포르(7개) 벨기에(5개) 등의 순이다.

이들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드론, 핀테크, 헬스케어, 전기자동차 등 혁신 기술을 들고 대회에 참가했다.

한국에서 창업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는 △얼리어답터(새 제품을 남보다 먼저 경험하려는 고객)가 많아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시험하기 좋다는 점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대기업과의 협력 기회 등을 꼽았다.

일부에서는 국내가 아닌 해외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 국내 벤처 생태계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느냐고 지적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창업 생태계가 글로벌화되고, 우수기술을 가진 창업기업이 많이 생겨나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세계 각국은 새로운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무장한 스타트업들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해외 유망 스타트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미국의 ‘매스챌린지’, 프랑스의 ‘프렌치테크 티켓’ 등이 대표적인 글로벌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칠레도 국가 주도로 ‘스타트업 칠레’를 만들어 100팀을 선발해 창업자금과 취업비자, 사무실, 현지 네트워킹 및 정착을 돕고 있다.

고경모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은 “이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향후 5년간 100개 이상의 글로벌 스타트업이 새로 생기게 된다”면서 “이들은 성장을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국내 스타트업들에게는 글로벌 감각을 키울 수 있는 훌륭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21일까지 국내에서 진행되는 최종 결선 후에 40팀을 뽑아 3개월간 국내 창업 활동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이후 이들을 대상으로 11월 말 벤처캐피탈과 국내 대기업 등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열어 최대 20팀을 선발해 초기자금과 사무공간, 비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이 프로그램이 세계적인 ‘글로벌 액셀러



이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프로그램이란

◇개요

세계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국내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처음 시작.

◇경과

①서류심사(6 월 14 일 마감)

124 개국에서 2439 개 팀이 참가 신청해 240 팀 선발

②예선(6 월 20 일~7 월 13 일)

원격 인터뷰와 현지 공개 오디션 통해 78 팀 선발

③결선(8 월 17~21 일)

한국에서 4 박 5 일간 집중 심사 통해 40 팀 선발

④엑셀러레이팅(9 월 1 일~11 월 30 일)

국내 창업 돕는 3 개월의 컨설팅

⑤후속 투자 및 정착 지원

최종 20팀 선발해 팀당 4000만 원 자금 지원

<http://news.donga.com/3/all/20160817/79823380/1#csidxbec85e1bbd8b4e59b273965efaaba3c>

Copyright © LinkBack

## 국내 창업 위한 'K-스타트업 대회' 최종결선 개막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진행하는 스타트업 대회 최종 결선이 어제(17일) 4박 5일의 일정으로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행사 첫해인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에는 124개국 2,439개 팀이 지원했고, 예선을 통해 78개 팀이 결선에 올랐습니다.

이중 선발된 40개 팀은 국내 창업 활동의 기회를 얻게 되고, 최종 우승팀 20곳은 팀당 4천만 원을 6개월에 걸쳐 받게 됩니다.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134352>



## S. Korea emerges as new hub for int'l entrepreneurs

SEOUL, Sept. 30 (Yonhap) -- For Maria Lee, it was difficult to settle down after first moving to South Korea because she was not speaking the local language fluently. As an "ajumma" -- a Korean word for a middle-aged woman -- herself, she wanted to help 1.7 million other foreigners living in the country overcome these challenges.

When Lee decided to start her own business, she sought help from the Seoul Global Center (SGC), which provides assistance to foreign entrepreneurs seeking to bring new innovation and ideas to the country.

Fund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 center opened in January 2008 and now has seven different branches in the capital city. This network, on a mission to assist Seoul's ever-growing expatriate tribe, is aimed at helping foreigners settle down.

Another task of the center is to offer an incubation service to promising foreign-owned startups with office spaces at three different locations and other guidance, such as counseling and startup mentoring.

Following six months of preparation at the incubation center, Lee launched "Ask Ajumma," a virtual concierge service application, in May 2015, with two other foreign national colleagues. The service attracted more than 3,000 customers in just five months.



Maria Lee, founder and CEO of "Ask Ajumma," a virtual concierge service application, speaks at the Foreign Startups Business Fair at COEX in Seoul on Sept. 28, 2016. (Yonhap)

The service is to assist foreigners with ordering food, furniture, groceries and flowers, reserving hotels and housekeepers and virtually anything. A user can send a message via South Korea's most-used mobile messenger Kakao, Facebook or email, and describe the product or service being sought with as much detail as possible.

"The idea of Ask Ajumma was conceived to make living in South Korea easier for all foreigners," Lee said, noting that the company recently also won a startup grant from the Korea Techno Venture Foundation.

In an effort to further promote the startups, the SGC held the Foreign Startups Business Fair at the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er (COEX) in Seoul on Sept. 28 where a total of 15 group of international entrepreneurs from across the world pitched their business ideas.

"The Seoul Global Center will best help you with incubation programs. We provide what new entrepreneurs want to do," Paul Carver, head of the center, said in an opening speech.

The startup scene in South Korea started to change just a few years ago with the launch of the first batch of the accelerators and support programs after President Park Geun-hye came into office in 2013.

Steve McKinney, president of Seoul-based McKinney Consulting Inc., is one of the first-generation foreign entrepreneurs who launched his own business five years ago. He currently also works as a mentor for various foreign aspiring businessmen.

"We did not have this kind of support when I started the business. It is wonderful that we have this support," said McKinney.



Entrepreneurs and potential investors speak at a booth at the Foreign Startups Business Fair at COEX in Seoul on Sept. 28, 2016. (Yonhap)

Park's centerpiece "creative economy" policy seeks new and inventive business opportunities and more jobs through the fus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other industries.

The government already pumped US\$2 billion into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rtups and plans to inject an additional \$3.7 billion into startups in the form of grants and other initiatives in the next three years.

The ultimate object of various startup support measures is to promote the expansion of an open entrepreneurship ecosystem in Asia and to assist the country's evolution into a prominent startup hub in the region.

To push for the initiative, the central government, in cooperation with provincial governments, has established "creative economy innovation centers" in 17 locations across the country. The centers have provided various kinds of support for aspiring entrepreneurs both at home and from abroad.

As of August, the centers have offered various forms of support to 1,175 startups, and 1,644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have helped attract investments worth \$256 million for these local firms. Moreover, the startups, which have been supported by the centers, have created 1,360 new jobs.



President Park Geun-hye visits Creative Economy Valley in Pangyo, south of Seoul, on July. 21, 2016. (Yonhap)

At the Creative Economy Valley in Pangyo, a total of 40 foreign startups are currently preparing their business as part of an accelerator program, the K-Startup Grand Challenge.

The campus is designed to offer a wide range of services for new businesses largely involving big data, fintech, the Internet of Things, cloud computing and mobile technologies. It currently houses some 200 firms including the Yozma Group, an Israel-based global venture capital firm, and TEDCO, created by the Maryland State Legislature to support startups.

The challenge, the first of its kind, is sponsor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and conducted by the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NIPA) with the cooperation of four accelerators, or venture capitals.

"The program endorses the inflow of promising startups in the broader Asian market so that the entrepreneurs can use South Korea as foothold for thei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sia," said Choi Bo-young, an NIPA official in charge of the program.

The 40 startups were picked from a total of 2,439 applicants from 123 countries, with their business areas varying from artificial intelligence (AI) to virtual reality (VR). The teams are participating in a three-month-long program that includes in-depth monitoring from accelerators.

The program also aims to foster the local tech ecosystem in South Korea which up to this point has been heavily dominated by the big corporations like Samsung Electronics Co. and LG Electronics Inc.



The opening ceremony of Pangyo Startup Campus is under way in March 2016. (Yonhap file photo)

Four of Seoul's most successful accelerators -- ActnerLab, DEV Korea, Shift and SparkLabs -- are matched with 10 startups each to provide training and other support at Pangyo, the area dubbed South Korea's Silicon Valley.

Over the next three months, the startups will work and compete and 20 teams will be picked in December for the second stage and participate in a domestic settlement program. The 20 teams will be able to extend their stay for another six months and receive US\$36,000 each in funding from the government, with the top four getting additional support.

Angie Huang is the founder and CEO of Herxun, a company that produces a mobile service platform called Lightspeed. The product provides a set of tools for mobile developers so that developers can add messaging, social and notification features into their applications easily.

After setting up the company in Beijing and Taipei two years ago, she participated in the program to expand her business to other regions of Asia.



"There is a saying that here is Silicon Valley of Asia as everything is so fast. We thought it would be a good place as there are a lot of enterprises with potential targets," said Huang, noting that the company hopes to close a couple of deals with local enterprises and investors.



Participants of the K-Startup Grand Challenge take a mentoring class at the Creative Economy Valley in Pangyo, south of Seoul. (Photo courtesy of the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Industry analysts forecast that the local ecosystem for startups will have further matured in the next few years, with a dozen accelerators expected to grow.

The number of startups in South Korea rose to roughly 30,000 as of 2015, up from 2,000 in 2000. The number is expected to soar to as many as 50,000 by end of 2017.

Kim Seong-tae, a researcher at the state-run think Korea Development Institute, said South Korea is an attractive hub for foreign entrepreneurs seeking to start their own business for three reasons.

"South Korea is safe and highly stable, one of the most wired countries in the world, and, most of all, can be a gateway to the global market," said Kim.

<http://english.yonhapnews.co.kr/national/2016/09/29/39/0302000000AEN20160929000300320F.html>